원 저

血脈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종영* · 조병준* · 권기록* · 강대인**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
** 고운하늘한의원

Literary Study of Hyeolmaek (血脈)

Jong Young Lee* · Byung Jun Cho* · Ki Rok Kwon* · Dae In Kang**

*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al College, Sangji University
** Beautiful Sky Oriental Medical Clinic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modern blood vessel is defined in Oriental medicine through literary investigation.

Methods : Contents from 35 classical texts representing each era were analyzed for the expression of Hyeolmaek and affiliated information, as well as terms used for the current concept of blood vessel.

Results :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investigating literary information on Hyeolmaek.

1. In the Yellow Emperor's Classic, Hyeolmaek is associated with heart and widely used for physiological, pathological, diagnosis, and treatment purposes.
2. During the Song Dynasty, a term Cheonggeun (靑筋) is used to describe the vein in the abdomen.
3. During the Ming Dynasty, terms such as Cheonggeun (靑筋) and Cheongmaek (靑脈) were used.
4. The term Hyeolmaek was used inclusively for blood, blood vessels, arteries, veins, and as well as meridians.

Key words : *Hyeolmaek (血脈), Cheonggeun (靑筋), Cheongmaek (靑脈), blood vessels, meridian*

Ⅰ. 緖 論

《黃帝內經素問》[1]에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이라 하여 五臟과 五體와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血脈이 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五行的으로 정의하였고,《黃帝內經靈樞》[2]에서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何謂脈 岐伯曰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이라 하여 血脈을 血과 脈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岐伯曰 血脈者盛, 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寫之萬全也."라 하여 그 血脈의 크기에 따른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血脈은 經脈과 血管의 기능을 수행하는 氣血의 운행통로로서, 현재의 動·靜脈과 血液의 개념을 포괄한 광범위한 생리·병리 및 진단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3].

현재 中國에서는 오래전부터 血管 注入用 藥鍼을 사용하고 있는데[4], 이러한 藥鍼이 韓國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본 연구진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다[5-11]. 문헌적

※ 교신저자 : 권기록,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과
(Tel : 033-741-9257 E-mail: beevenom@paran.com)

고찰[5]과 시험관 내 실험[6-8]과 동물실험[9] 그리고 임상실험[10,11]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연구 성과 또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영역을 확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 영역에 대한 定義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혈맥에 대한 역대의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고전의 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血脈의 의미와, 血脈과 유사한 靑帶, 靑筋 등의 내용을 시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과연 血脈이 어떠한 개념으로 한의학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여 현재의 血管개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영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의한 결론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時代的 文獻內容

1. 戰國-秦漢時代

1) 黃帝內經素問[1]

- 〈六節藏象論篇 第九〉 岐伯曰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 〈平人氣象論篇 第十八〉 藏眞通於心, 心藏血脈之氣也.
- 〈三部九候論篇 第二十〉 岐伯曰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 實則寫之, 虛則補之. 必先去其血脈而後調之, 無問其病, 以平爲期.
- 〈離合眞邪論篇 第二十七〉 岐伯曰 夫邪去絡入於經也, 舍於血脈之中, 其寒溫未相得, 如涌波之起也, 時來時去, 故不常在.
- 〈瘧 論篇 第四十四〉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
- 〈繆刺論篇 第六十三〉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 血脈出血, 刺足跗上動脈…

2) 黃帝內經靈樞[2]

- 〈九鍼十二原 第一〉 審視血脈者, 刺之無殆. 方刺之時, 必在懸陽, 及與兩衛, 神屬勿去, 知病存亡. 血脈者, 在脘橫居, 視之獨澄, 切之獨堅.
- 〈小鍼解 第三〉 "宛陳則除之"者, 去血脈也.
- 〈官鍼 第七〉 四曰絡刺, 絡刺者, 刺小絡之血脈也.
- 〈終始 第九〉 刺此病者, 深內而久留之, 間日而復刺之, 必先調其左右, 去其血脈, 刺道畢矣.
- 〈終始 第九〉人迎與脈口俱盛三倍已上, 命曰陰陽俱溢, 如是者, 不開則血脈閉塞, 氣無所行, 流淫于中, 五藏內傷.
- 〈四時氣 第十九〉故春取經 · 血脈 · 分肉之間, 甚者深刺之, 間者淺刺之.
- 〈五邪 第二十〉取之行間, 以引脅下, 補三里以溫胃中, 取血脈以散惡血, 取耳間靑脈, 以去其掣.
- 〈周痺 第二十七〉 間不容空, 願聞此痛, 在血脈之中邪, 將在分肉之間乎
- 〈周痺 第二十七〉 岐伯對曰 周痺者, 在于血脈之中, 隨脈以上, 隨脈以下, 不能左右, 各當其所. p267
- 〈決氣 第三十〉 黃帝曰 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 今乃辨爲六名, 余不知其所以然.
  岐伯曰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何謂脈
  岐伯曰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
- 〈決氣 第三十〉 六氣者, 有餘不足, 氣之多少, 腦髓之虛實, 血脈之淸濁, 何以知之.
- 〈五亂 第三十四〉 氣在于臂足, 取之先去血脈, 後取其陽明 · 少陽之滎輸.
- 〈脹論 第三十五〉 黃帝曰 夫氣之令人脹也, 在於血脈之中邪, 藏府之內乎
- 〈血絡論 第三十九〉 岐伯曰 血脈者盛, 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寫之萬全也.
- 〈病傳 第四十二〉 岐伯曰 痦乎其無聲, 漠乎其無形, 折毛發理, 正氣橫傾, 淫邪泮衍, 血脈傳溜, 大氣入藏, 腹痛下淫, 可以致死, 不可以致生.
- 〈五變 第四十六〉 胸中畜積, 血氣逆留, 臗皮充肌, 血脈不行, 轉而爲熱, 熱則消肌膚, 故爲消癉.
- 〈賊風 第五十八〉 岐伯曰 此皆嘗有所傷于濕氣, 藏于血脈之中, 分肉之間, 久留而不去.
- 〈五味論 第六十三〉 血脈者, 中焦之道也, 故鹹入而走血矣.
- 〈百病始生 第六十六〉 岐伯曰 厥氣生足悗, 悗生脛寒, 脛寒則血脈凝澁, 血脈凝凝則寒氣上入於腸胃, 入於腸胃則膜脹.
- 〈憂恚無言 第六十九〉 岐伯曰 足之少陰, 上繫於舌, 絡於橫骨, 終於會厭, 兩寫其血脈, 濁氣乃辟.
- 〈邪客 第七十一〉 因視目之五色, 以知五藏, 而決死生, 視其血脈, 察其色, 以知其寒熱痛痺.
- 〈論疾診尺 第七十四〉 魚上白肉有靑血脈者, 胃中有

寒. 尺炬然熱, 人迎大者, 當奪血.

- 〈論疾診尺 第七十四〉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靑多痛, 多黑爲久痺, 多赤多黑多靑皆見者, 寒熱. 身痛而色微黃, 齒垢黃, 爪甲上黃.
- 〈刺節眞邪 第七十五〉 岐伯曰 大風在身, **血脈**偏虛, 虛者不足, 實者有餘, 輕重不得.
- 〈刺節眞邪 第七十五〉 **血脈**凝結, 堅搏不往來者, 亦未可卽柔.
- 〈刺節眞邪 第七十五〉 掌與腋·肘與脚·項與脊而調之, 火氣已通, 血脈乃行.
- 〈九鍼論 第七十八〉 人之所以成生者血脈也.
- 〈癰疽 第八十一〉 夫血脈營衛, 周流不休, 上應星宿, 下應經數, 寒邪客於經絡之中, 則血泣, 血泣則不通, 不通則衛氣歸之, 不得復反, 故癰腫.

3) 金匱要略[12]

- 二者, 四肢九竅, 血脈相傳, 壅塞不通, 爲外皮膚所中也…

4) 難經[13]

…二損損於血脈, 血脈虛少, 不能榮於五臟六腑也:…

戰國-秦漢時代의 血脈에 관해 언급한 《黃帝內經素問》, 《靈樞》, 《金匱要略》, 그리고 《難經》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 《黃帝內經素問》, 《靈樞》에서의 血脈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생리적 방면으로는 君主之官인 心과의 관련을 중시하여 心이 血脈을 主管하고 血脈이 心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病理的 방면에서는 血脈이 凝滯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체가 부드럽지 못하고 쉽게 경화되며, 癰腫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체의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한 전신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血脈의 생리적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신에 이상이 나타나므로 望診을 통하여 病의 深淺을 감별하거나, 魚際穴에 靜脈이 두드러지게 노출되었을 때 胃에 寒邪가 침입하였음을 진단할 수 있듯이 부위별 이상을 臟·腑·經絡과 연계하여 진단하는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치료의 대상으로서 血脈은 많은 부분에서 邪氣가 침입하여 血脈이 凝滯되었을 때 먼저 瀉血療法을 시행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血脈이 현재의 靜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經絡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거나, 血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도 많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動·靜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드물게 《靈樞》의 〈五邪論〉에서 귀에 분포하는 정맥을 靑脈으로 언급하여 靑脈에 대한 표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內經》이후의 저서인 《金匱要略》, 《難經》에서도 血脈은 생리적 작용, 즉 인체를 영양하는 血脈의 기본적 작용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兩晉 및 隋唐時代

1) 脈經(魏 王叔和)·針灸甲乙經(魏 皇甫謐)[14]

- 脈直前左右彈者 病在血脈中肝血也. 脈後而左右彈者病在筋骨中也.
- 黃帝問曰, 六氣者, 有餘不足, 氣之多少腦髓之虛實血脈之淸濁何以知之.

2) 外臺秘要[15]

- 風傷皮毛. 熱傷血脈. 風舍於肺. 其人則欬. 口乾喘滿. 咽燥不渴. 唾而濁沫. 時時振寒. 熱之所過血爲凝滯. 蓄結癰膿吐如米粥始萌可救.膿已成則難治.寸口脈數.

3) 黃帝內經太素[16]

- 走於中焦血脈之中, 以鹹與血相得, 卽澁而不中, … 血脈者, 中焦之道也, 故鹹入而走血矣.

兩晉 및 隋唐시대의 文獻은 《脈經》·《針灸甲乙經》, 《外臺秘要》, 그리고 《黃帝內經太素》 등을 들 수 있으며 《脈經》에서의 血脈은 經絡的 의미와 動·靜脈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外臺秘要》에서의 血脈은 血管이나 血자체의 의미가 있으며, 《黃帝內經太素》에서 血脈은 經絡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생리적·병리적 작용과 진단 및 치료에서 혈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3. 宋時代

1) 婦人大全良方[17]

• 其子失乳, 必四肢亟 羸, 肚大青筋, 頭大髮焦, 好啖泥土, 病名無辜.

2) 傷寒總病論[18]

青筋牽證

• 春三月青筋牽證, 其源自少陰, 少陽. 從少陰而涉足少陽, 少陽之氣始發, 少陰之氣始衰, 陰陽怫鬱於腠理皮毛之間, 因生表裏之痾. 因從足少陽發動及少陰, 則臟腑受癘而生其病.

3) 諸病源候論校釋[19]

• 虛勞病人, 氣血不足, 血虛則不能充盈血脈, 氣虛則不能鼓舞血行…

4) 全生指迷方[20]

• …是謂五臟之氣全也 又有推而外之在經絡 推而內之在血脈 凡診平人之脈當以…
• 論曰若始覺肌肉不仁 久而變生他證 病名曰痺 此由風寒濕三氣客于經絡 舍于血脈 搏于營衛 故令皮膚痺而不仁有熱…

5) 聖濟總錄[21]

• 病在四肢血脈者. 服藥宜空腹而在旦.

6) 歷代中醫珍本集成[22]

仲景傷寒補亡論 宋 郭雍

• 千金方曰其病形不可灸 因火爲邪散走血脈傷脈 尙可傷臟…卷第十二
• 諸經者血脈之道路也…卷第十四
• …腠理不開無由作汗而出鬱而在裏 終不能散淫邪 泮衍血脈傳流 其毒之重者遇血相搏 不能勝爲之變結…卷第十四
• 孫眞人論曰婦人溫病 雖差未能平復血脈 未和尙有熱毒 足以毒人男子接之得病名爲陰易之病…卷第十五
• 孫眞人曰新産婦人及金瘡 血脈虛竭 小兒臍風 大人濕溫得痙風者 皆死…卷第十五

7) 針灸資生經[23]

• 顱息二穴. 在耳後間青絡脈. 灸七壯. 不宜針. 明云顱息在耳後青脈間. 灸三壯. 針一分. 不得多出血. 出血多, 殺人.
• 承漿一名懸漿. 在頤前脣下宛宛中. 日灸七壯. 止七七. 灸卽血脈通宣. 其風立愈.…
• 傷筋膜者, 愕視失魂. 傷血脈者, 煩亂失神. 傷皮毛者,…

宋時代의 《婦人良方大全》, 《諸病源候論校釋》, 《傷寒總病論》, 《全生指迷方》, 《聖濟總錄》, 《歷代中醫珍本集成》, 그리고 《針灸資生經》 등을 고찰하여 血脈과 靑筋, 靑脈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靜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宋代에 와서 처음 靑筋이라는 표현이 出現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婦人良方大全》에서 靑筋은 腹部의 靜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위에 따른 용어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諸病源候論校釋》에서의 血脈은 血管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傷寒總病論》의 〈靑筋見症〉을 살펴보면 여기서 靑筋은 현재의 인대와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全生指迷方》에서는 밖에는 經絡, 안에는 血脈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經絡과는 다른 의미로 血管, 즉 動靜脈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歷代中醫珍本集成》에서는 血脈과 脈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針灸資生經》에서는 귀 뒤의 잘 보이는 靜脈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분에서는 血管내지는 血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金元時代

1) 丹溪心法附餘[24]

• …必也脈遲浮 可治 大數而極者 死 若果外中者 則東垣所謂中血脈中府中藏之理 其放四肢不擧 亦有與痿相類者 當細分之局方 風痿同治大謬 發揮其詳…

2) 脾胃論(東醫寶鑑 南山堂)[25]

諸脈屬目

- 因心事煩冗 飮食失節 勞役過度 故脾胃虛弱 心火太盛 則百脈沸騰 血脈逆行 邪害孔竅 所謂天明 則 日月不明是也. 脾者 諸陰之首也. 目者 血脈之宗也. 故脾虛 則五藏之精氣 皆失所司 不能歸明於目矣. 心者君火也 主人之神 宜靜而安 相火代行 其令相火者包絡也 主百脈 皆榮於目 旣勞役運動 損其血脈 故諸病生焉. 醫者 不理脾胃 及養血安神 是治標 不治本 不明 此理也(東垣).

手按辨熱深淺

- 以手捫摸 有三法 輕手捫之 則熱 重按之則不熱 是熱在皮毛 血脈也(東垣).
- 輕手捫之不熱 重手按之亦不熱 不輕不重 按之則熱在筋骨之上 皮毛血脈之下 乃熱在肌肉也. 三黃丸 通治之(東垣).

癰疽輕重淺深之辨

- 癰疽腫高而軟者 發於血脈 腫下而堅者 發於筋脈 肉色不變者 發於骨髓(東垣).

3) 世醫得效方[26]

- …青筋紋橫肚上. 及爪甲卒腫. 頭面蒼黑.…
- …手足溫. 汗出乃愈. 治氣亦效. 通血脈. 和一切氣. 無出此藥…

金元시대의 文獻에서 《丹溪心法附餘》에서 血脈은 經絡的 의미와 血管, 그리고 血液自體의 의미를 다 포괄한다고 판단된다.

《東醫寶鑑》에서 살펴본 東垣의 引用文에서 血脈은 解剖學的으로 筋骨의 上部이며 皮毛血脈의 아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動靜脈을 의미한다고 추정되고, 《世醫得效方》에서는 宋時代에 처음 출현했던 靑筋을 역시 동일한 의미로 腹部에 靜脈을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5. 明時代

1) 醫學入門(東醫寶鑑 南山堂)[25]

傷寒 頭痛身疼 百節痛

- 風寒入肌 血脈凝滯 所以身痛 太陽身痛 拘急而已 少陽身痛 必脇硬嘔渴 少陰身痛 下利煩滿 陰毒身痛 宛如被杖(入門).

2) 類經[27]

- 又若經文連屬, 難以强分, 或附見于別門, 欲求之而不得, 分條索隱, 血脈貫矣…
- 淸屬肝肝合筋, 凡色靑筋病者, 卽爲肝邪…

3) 普濟方[28]

- 春三月者. 主肝膽靑筋牽病也. 其源從少陰.

4) 證治準繩[29]

- 凡瘡腫高而軟者 發於血脈 腫下而堅者 發於筋脈 肉色不變 發於骨髓 蓋必有諸中而後形 諸外…
- 治目疾累 服寒凉藥不愈 兩眼蒸熱如火之熏 赤而不痛 滿目紅絲 血脈貫睛 瞥悶昏暗差明畏日…
- 産後作見鬼神者何 答曰心主身之血脈 因産耗傷血脈 心氣虛卽敗血 得積上于於心…
- 跌撲閃肭外傷 內損常服通經絡 活血脈疏風順氣 壯骨輕身…
- 靈樞經癰疽篇云 血脈營衛周流不休 上應星宿下應經數 寒邪客於經絡之中則血泣 血泣則不通 不通則衛氣歸之不得…
- 下熱骨之前血脈出血 刺足跗上動脈不已 刺三毛上各一痛見血則已左刺右 右刺左…

5) 醫學正傳[30]

- 眞中風邪者, 東垣中血脈, 中腑, 中臟之說甚好.

6) 萬病回春[31]

靑筋

- 夫靑筋之症, 原氣逆而血不行, 幷惡血上攻于心也. 多由一切怒氣相沖, 或憂鬱氣結不散, 或惱怒腹傷生冷, 或房勞後受寒濕, 以致精神恍惚, 心慌氣喘, 噎塞上壅, 嘔吵惡心, 頭目昏眩, 胸膈痞滿, 心腹刺痛, 脇肋腰背

痛, 頭痛腦疼, 口苦舌乾, 面靑脣黑, 四肢沈困, 百節酸痛, 或憎寒壯熱, 遍身痲痺不仁, 手足厥冷顫掉, 默默不語, 不思飮食等症, 皆惡血攻心而致之也. 自古以來, 無人論此, 但有患此疾者, 無方可治. 唯以砭針于兩手曲池靑筋上刺之, 出瘀血不胜其數. 而疾有卽愈者, 有不愈者, 而變爲大患者, 常慣病此者, 或有一月一次, 或二三次者, 屢患屢刺, 莫之能愈. … 白虎, 西方肺金之謂也; 靑筋者, 東方肝木之謂也. 以白虎而治靑筋, 是金能克木故耳, 何病之不愈哉 此方之妙, 不唯代刺靑筋之苦, 愈靑筋之病, 而亦免後日之患. …按此靑筋之症, 北人多患之, 南人有此卽沙症也.

7) 醫學綱目[32]

- 又法.. 內踝下白肉際, 靑脈上, 灸隨年壯.
- 胃熱, 善食漸瘦, 津液不生. 夫經者, 血脈津液所化, 津液旣絶, 爲熱所爍, 肌肉漸瘦, 時見渴燥…

8) 景岳全書[33]

- 痿論曰: 心主身之血脈.
- 平人絶穀篇曰: 血脈和則. 精神乃居.

明 時代의 文獻을 고찰해 본 결과《醫學入門》에서 血脈은 凝滯된다고 하였으므로 血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類經》에서는 靑筋을 五行的 개념과 연결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證治準繩》에서는 血脈이라는 표현을 動脈으로 볼 수 있으나 얼굴이나 피부에 빨간 실핏줄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다른 부분에서 血脈을 出血시킨다는 표현으로 봐서 靜脈으로 볼 수 있다.《萬病回春》에서는 靑筋門을 따로 두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결국 筋이 파랗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작게는 靜脈이 터져서 멍이 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크게는 筋에 영양공급이 떨어진 筋 자체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로서 靑筋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醫學綱目》에서는 血脈이 化한 것이 經이라 하여 통상적인 血脈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景岳全書》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血 그 자체를 의미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있다.

6. 淸時代

1) 鍼灸大成校釋[34]

- 人有所墮墜, 惡血留內, 腹中滿脹, 不得前後, 先飮利藥, 此上傷厥陰之脈, 下傷少陰之樂,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血脈出血, 刺足跗上動脈, 不已, 刺三毛上各一痏, 見血立已, 左刺右, 右刺左.

2) 醫學心悟[35]

- 中風者 眞中風也. 有中腑・中臟・中血脈之殊.

3) 本草綱目拾遺[36]

- 白虎丸. 治一切靑筋腹痛. 萬氏家抄. 天龍骨不拘多少. 去泥土. 水飛過. 丸似梧子大.…

4) 四庫全書[37]

- 因心事煩冗 飮食失節 勞役過度 故脾胃虛弱 心火太盛 則百脈沸騰 血脈逆行 邪害孔竅 所謂天明 則 日月不明是也. 脾者 諸陰之首也. 目者 血脈之宗也. 故脾虛 則五藏之精氣 皆失所司 不能歸明於目矣. 心者君火也 主人之神 宜靜而安 相火代行 其令相火者包絡也 主百脈 皆榮於目 旣勞役運動 損其血脈 故諸病生焉. 醫者 不理脾胃 及養血安神治

5) 臨証指南醫案[38]

- 但瘡毋必在脇下. 以少陽厥陰表裏爲病. 今脈弦大. 面色黃滯. 腹大靑筋皆露.

6) 驗方新編[39]

- 此少陰血脈下養于胎, 不能上營于舌, 生子之后自能言語, 非病也, 不可腹藥.
- 若現靑筋可治, 內服陽和湯…

7) 惠直堂經驗方[40]

- 治元氣虛弱, 血脈凝滯, 以致筋骨痿痹,…

8) 石室秘錄[41]

• 血脈不足之症, 任,督,陰陽各蹻 經絡不足, 或毛髮之乾枯…

淸時代는 《鍼灸大成校釋》, 《醫學心悟》, 《本草綱目拾遺》, 《四庫全書》, 《臨証指南醫案》, 《驗方新編》, 《惠直堂經驗方》, 《石室秘錄》 등의 文獻에서 靜脈과 관련한 문구를 찾을 수 있었다. 《鍼灸大成校釋》에서는 血脈, 動脈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 血脈은 出血시킨다는 것으로 미루어 靜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本草綱目拾遺》에서 靑筋은 腹部에 靜脈을 의미하고, 《臨証指南醫案》에서의 靑筋은 腹部의 靜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驗方新編》에서의 血脈은 經絡의 의미, 靑筋은 病내지는 症의 의미로 筋이 파랗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石室秘錄》에서는 血脈은 經絡으로 볼 수도 있으나 化하여 經絡이 되는 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7. 其他, 現代

1) 脈法精粹[42]

• 古代脈法起源于古代醫家對血脈經絡的全面檢查,…

2) 中華脈診[43]

• 其充在血脈, "手少陰氣絶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指明脈爲血脈, 源出于心,
• … 再加上血的流行, 以及脈氣的推動, 所謂 "脈乃血脈, 氣血之先, 血之遂道, 氣息應焉……資始于腎, 資生于胃. …
• 在生理上, 五臟六腑之氣無不通于血脈, 如《靈樞 · 脈度》 指出: " 陰脈榮其臟, 陽脈榮其腑……

其他 文獻들에서는 歷代文獻들과 마찬가지로 血脈, 靑筋의 표현들에서 전체적으로 血 그 자체나 靜脈를 의미하고 있으며 經絡的 의미가 강하게 內包되어 있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Ⅲ. 考 察

《黃帝內經素問》 〈痿論〉에 "心主血脈"이라 하여 一身之君인 心과 혈맥의 상관성을 五行的으로 歸類하였고[1], 《黃帝內經 · 靈樞》 〈決氣篇〉에서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何謂脈 岐伯曰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이라 하여 血脈을 血과 脈으로 나누어 정의[2]하고 있는데, 血脈은 지금의 動 · 靜脈과 血 그 자체를 다 포괄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는 經絡의 의미와 인체의 영양분으로서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혈맥은 생리 · 병리적 방면뿐만 아니라 진단 · 치료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인체의 유기적인 상관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歷代 文獻에서는 靑血脈이라는 표현이 《靈樞》에 나오는 것부터 현대의 靜脈의 개념을 이미 포함하는 것으로 그 뒤 시대별로 靑筋이라는 말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血脈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내용 즉 動 · 靜脈과, 經絡的 의미까지 포괄하여 사용되어 靑筋, 靑脈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時代가 지날수록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분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宋시대의 《婦人良方大全》에서 靑筋이라는 표현[17]으로 腹部의 靜脈을 지칭하였고, 《針灸資生經》에서는 靑絡脈, 靑脈이라는 표현[23]으로 귀 뒤의 잘 보이는 靜脈을 의미하였다. 또한 金元시대에는 血脈으로서 靜脈을 의미하는 것이 주류였고[24-26], 明 시대에 접어들어 《萬病回春》에서는[31] 〈靑筋門〉을 따로 두어 정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靑筋門〉에서는 靑筋을 筋이 파랗게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작게는 靜脈이 터져서 멍이 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크게는 筋에 영양공급이 떨어진 筋 자체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로서 靑筋을 사용하고 있다. 淸時代에 이르러 《臨証指南醫案》에서 靑筋이 腹部의 靜脈을 의미하는 표현[38]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驗方新編》에서의 血脈은 經絡의 의미, 靑筋은 病 또는 症의 의미로 筋이 파랗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39].

이와 같이 歷代 文獻에서 현재의 혈관 개념은 血脈, 靑脈, 靑帶, 그리고 靑筋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진단 및 치료적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학문의 발전과 주변 학문과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한의학 역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라는 큰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의학도로서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의 動 · 靜脈은 진단 및 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혈맥 주입용 약침[5-11]은 기존 한의학의 발전적 연장선상에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結 論

역대 의서를 바탕으로 血脈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에서는 血脈을 心과 연계하여 생리 · 병리 및 진단 · 치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宋代에 이르러 복부의 정맥을 지칭하는 말로 靑筋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3. 明代에 이르러 靑筋, 靑脈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4. 血脈은 혈액과 혈관, 동맥과 정맥뿐만 아니라 經絡의 의미도 포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참고문헌

1.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集文堂. 2005 ; 205, 341, 411, 526, 757, 1001.
2. 裵秉哲 釋. 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5 ; 17, 48, 100, 118, 124, 215, 223, 226, 267, 286, 288, 302, 304, 326, 338, 356, 430, 460, 495, 507, 521, 547, 548, 557, 562, 590, 625.
3. 전통의학연구소. 韓醫學事典. 成輔社. 1978 ; 83.
4. 이문호, 손인철. 약침요법. 일중사. 2002 ; 17.
5. Ki-rok Kwon, Jong-Song Owi, Seong-Wook Kim. A literary Study on wild Ginse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Herbal Acupuncture 6(2) : 67-76 2003.
6. 조희철, 이선구, 권기록. 농도별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약침학회지. 2004 ; 7(2) : 5-17.
7. 곡경승, 이선구, 권기록. pH 및 전해질 조절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6) : 1-17.
8. 권기록, 김병우. Comparative study of Various Ginseng Herbal Acupuncture—By measuring the increase of life span of mice and Expression of cytokine mRNA. 대한침구학회지. 2005 ; 22(2)203-210.
9. 권기록 외. 정맥주입용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급성, 아급성 독성 실험 및 Sarcoma-180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약침학회지. 2003; 6(2): 7-27.
10. 권기록. 정맥주입용 산삼약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약침학회지. 2004 ; 7(1) : 15-26.
11. 권기록, 박치완, 나민수, 조종관 Clinical Observation of Multiple Metastatic Cancer Patient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treated with Cultivated Wild Ginseng Herbal Acupuncture Therapy. 대한침구학회지. 2005 ; 22(2)211-217.
12. 張仲景.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1997 ; 1.
13. 秦越人 難經. 法人文化社. 1998 ; 93.
14. 脈經(魏 王叔和) · 針灸甲乙經(魏 皇甫謐). 東洋醫學普本叢書. 法仁文化社 1981 ; 8, 18.
15.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1996 ; 355.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1999 ; 19.
17.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人民衛生出版社. 1985 ; 605.
18. 龐安時. 傷寒總病論. 人民衛生出版社. 1989 ; 126.
19. 巢元方.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3 ; 105.
20. 王肱 撰. 全生指迷方(四庫醫學叢書). 上海古籍出版社. 1991 ; 741-748.
21. 趙佶 외.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92 ; 1092.
22. 上海中醫學院文獻研究所. 傷寒補亡論. 上海三聯書店出版. 1990 ; 23.
23. 王執中, 針灸資生經. 一中社. 1991 ; 11, 13.
24.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1993 ; 47.
25.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2001 ; 106.
26. 危亦林 世醫得效方 元 상해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 12, 29.
27. 張介賓. 類經. 一中社. 1990; 7, 190.
28. 朱橚 等 編. 普濟方. 醫聖堂. 1993 ; 336.
29. 王肯堂. 證治準繩. 上海古籍出版社. 1991 ; 770.
30. 虞摶. 醫學正傳. 成輔社. 1986 ; 28.
31. 龔廷賢. 萬病回春. 人民衛生出版社. 1984 ; 163.
32. 樓英. 醫學綱目. 上海古籍出版社. 1991 ; 1489.

33. 張介賓. 景岳全書. 鼎談出版社. 2004 ; 563.
34.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大星文化社. 1993 ; 82.
35. 程國彭. 醫學心悟. 圖書出版鼎談. 2002 ; 290.
36. 趙學敏輯. 本草綱目拾遺. 商務印書館. 1971 ; .507.
37. 陳自明. 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1991 ; 492.
38.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法人文化社. 1996 ; 233, 756.
39. 鮑相璈 編輯. 驗方新編 人民衛生出版社出版. 1990 ; 208, 359.
40. 陶承熹 輯. 惠直堂經驗方. 中醫古籍出版社. 1994 ; 54.
41. 陣士鐸. 石室秘錄.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 193.
42. 許進京. 脈法精粹. 中醫古籍出版社. 2000 ; 3.
43. 劉冠軍. 中華脈診.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 3.